



대한노인회 군산시지회, 피해 지원 나서

군산시는 대한노인회 군산시지회(회장 이래범)가 호우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성금 600여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한노인회 군산시지회는 노인복지증진과 노인 권익 신장을 목적으로 설립돼 현재 관내 1만7,000여명의 회원과 경로당 523개소가 가입돼 있는 대표 노인단체다. 기탁식에 참석한 이래범 회장은 "군산시가 이번 호우로 인해 받은 피해를 군산시의 어른으로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었다"며 "우리 대한노인회 군산시지회는 사회의 어른으로서 나눔문화에 앞장서며,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임준 군산시장은 "군산시 호우 피해에 도움을 주신 대한노인회 군산시지회에 감사드립니다"며 "군산시에 피해 받은 주민들에게 어른들의 도움을 잘 전달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어른들이 이러한 재난에 피해를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관곤 기자



김제 진봉면, 지역민 단결 화합 체육대회 개최

우리 민족 선열들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제78주년 광복절을 기념하기 위한 제11회 진봉면 체육대회(진봉체육회장 신준길)가 정성주 김제시장, 진봉면 체육회원 등 주민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5일 진봉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개최됐다. 지난 장마철 많은 피해를 준 집중호우에 이어 불볕더위에서도 땀과 노력을 아끼지 않은 농민들을 격려하고, 아울러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며 이곳에 뿌리를 둔 지역민들과 출향인들이 한데 어울려 서로 간의 애합심을 확인한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때마침 연휴 기간에 농촌을 찾은 지역주민의 자제들도 자리를 함께하며 더욱 빛을 발한 이날은 삼향, 진봉 학교 대항 축구 경기와 4명씩 팀을 이뤄 치러진 축구 경기와 진행됐다. 진봉면 체육대회는 2010년까지 각각 개최되었던 진봉초등학교·삼향초등학교 체육대회를 지역주민, 출향인, 초등학교 등 문인 간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고자 진봉면 체육대회로 통합해, 코로나로 잠시 쉬어간 이후 올해 11회째를 맞이하고 있다. 한편 이날 행사에 참석한 박광국 진봉면장은 "주민 고통화로 인해 체육대회 규모가 예전보다 많이 줄었지만, 오늘 행사로 지역주민, 출향인 및 동문 등 모두의 화합의 장이 되길 바라며, 나아가 다가오는 새만금 시대의 중심 지역으로 우리 진봉면이 우뚝 설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제=곽태기 기자



건협 전북도회 등 남원시에 이웃돕기 성금 전달

남원시는 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회장 소재철)와 강한종합건설(대표 소재철)에서 남원시사랑상품권 및 쌀 72포 총 1,558만원 상당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전달식은 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 소재철 회장과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이선홍 회장 등 주요 임원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소재철 회장은 "어려운 경제 환경에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취약계층에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협회가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최경식 남원시장은 "어려운 시기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취약계층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감사를 전했다. 성금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남원시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도·전국호남향우, 상생 동반자”

전국호남향우회총연합회, 전북 고향사랑기부 릴레이 동참

전국호남향우회 총연합회(회장 최순모, 이하 향우회)가 전라북도 고향사랑기부 릴레이에 동참하며 전라북도 출향단체의 기부 행렬이 줄을 잇고 있다. 전북도는 16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고향사랑기부인증행사를 개최하고 향우회의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기부자에게 발급되는 전북사랑도민증 수여, 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향우회에 감사패 수여 등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전라북도 출향단체 고향사랑기부 퍼포먼스를 올케 여섯번째로 진행했다. 특히 이날 향우회가 기탁한 총 30,200만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은 최순모 전국호남향우회 총회장과 양승권 대구경북호남향우회장, 고산재 총북호남향우회 여성회장, 천정순 충남호남향우회장, 오명식 인천호남향우회장, 이성구 울산호남향우회장, 박순자 부산호남향우회장, 이병철 경남호남향우연합회장, 진호철 호남향우회 강원도연합회장, 김성수 전국호남향우회 청년회장, 박효경 전국호남향우회 여성회장 등 전국 각지 호남 향우 30여 명의 고향 발전 염원이 한군데 모아진 기부금으로 남다른 의미를 더했다. 또한, 전북도는 고향사랑 기부자 예우를 위해 운영



중인 누리집(온라인) 명예의 전당을 확대해 8월 중 도청사 1층에 '전라북도 고향사랑기부 명예의 전당' 구성을 계획하고 있으며, 도청 소식지 제공, 전북사랑도민증 발급 안내문 발송 등 고향사랑기부자 사후 관리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국 각지의 호남 향우분들을 한자리에 모시기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호남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공통점으로 삼아 전라북도와 전국호남향우회가 상생의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최순모 향우회장은 "전국호남향우회 총연합회는 2002년 발족한 이후 호남지역의 발전과 위상을 높이는 데 항상 앞장서 활동해왔다"며, "고향사랑기부금이 소중한 쓰이기 바라며, 앞으로도 전라북도 발전을 위한 우리 향우회의 적극 협력을 약속드린다"고 회답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 주소를 제외한 고향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다. 온라인 고향사랑기부금(www.ilovegdyang.go.kr)과 전국 NH농협에 방문해 기부에 참여할 수 있다. /김재훈 기자



이미선 남원시의원,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 수상

남원시의회 부의장인 이미선 의원(사회복지학 박사)이 16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2023 한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한국인 100인 대상 시상식에서 '지역 의회 활동 혁신 공로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상은 자랑스러운 한국인 100인 대상 시상식 조직위가 주최하고 대한민국 신문기자협회, 언론인 연합협회 등이 주관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종교, 스포츠 등 각 분야에서 묵묵히 헌신·노력해 온 숨은 공로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이미선 부의장은 평소 시민과 집행부와 소통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모범적인 의정활동으로 지방의회 혁신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그동안 △남원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윤석열 정부 복지에너지정책 재검토 촉구 △남원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체육·역사 문화적 활용방안 △남원원정 이동수당 △남원시 교육 정주 여건 미래방향 △관광지 입장료 환급 △남원시 사회복지사 등 복지수당 지급 의 70여건의 조례안·건의안·5분 발언·시정질문을 통해 지역민생과 의정활동에 힘쓰고 있다. 특히 시민들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개발에 매진해 왔다. 이미선 의원은 "이번 대상 수상은 시민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에 매진했다는 뜻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초심으로 민의를 대변하며 시민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한국관광정책연구학회, 관광개발 정책대상 시상식 개최

군산시는 16일 한국관광정책연구학회(회장 이연택 한양대 명예교수)가 2023년 제1회 대한민국 관광정책대상 관광개발부문 대상을 수상한 김임준 군산시장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상식에서 이연택 한국관광정책연구학회 회장은 군산의 고군산군도 K-관광섬 육성사업은 문화관광도시 관광자원 스펙트럼을 확장함으로써 지역관광개발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속가능한 섬 관광개발이라는 가치를 사업추진과정에 내재화함으로써 정책의 체계성과 적합성을 확보하고 사업의 실행과정에서 민관협력을 통한 정책의 소통성을 갖추었다는 점이 돋보였다고 우수 관광정책사례로 선정된 배경 덧붙였다. 대한민국 관광정책대상은 시, 군, 구 등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매년 부문별 우수 관광정책사례를 발굴·선정해 이를 추진한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대상을 수여하는 사업으로 올해 최초 시행됐으며, 지난 7월 고군산군도 K-관광섬 육성사업의 관광개발 분야 대상 수상이 확정됐다. 고군산군도 K-관광 섬 육성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휴양과 체험을 중시하는 여행 추세에 맞춰 저밀도 청정 관광지인 섬을 대상으로 관광 콘텐츠와 K-컬처를 융합한 섬으로 특화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신규 공모사업으로, 지난 4월 발도·명도·방축도 고군산군도 트레킹하이 라는 주제



로 시가 최종 선정돼 4년간 총사업비 115억을 확보했으며, 2026년까지 사업이 추진된다. 김임준 군산시장은 답사를 통해 "이번 관광정책대상 수상을 계기로 고군산군도 K-관광섬 육성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향후 고군산군도를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섬 명소로 발전시켜 문화관광도시 군산시의 관광매력을 확장시켜 나갈 것"이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어서 열린 관광정책담당에서는 △섬 관광개발 성공을 위한 추진 방향 설정, △새로운 관광브랜드 개발을 위한 관광개발사업 중요성, △섬 관광 이미지 확산을 위한 관광브랜드 구축 필요성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군산=김관곤 기자



우석대 군사학과 2학년 전원 장교선발시험 합격

우석대학교(총장 남천현)는 군사학과 2학년 재학생 전원이 각 군 장교선발시험 최종 합격자 명단에 합격했다고 밝혔다. 2학년 전체가 100% 합격한 사례는 흔치 않다. 올해 각 군 장교후보생 선발시험에서 이 대학 군사학과는 육군 15명과 해병대 12명, 공군 10명 등 2학년 재학생 49명(8기) 전원이 100% 합격이라는 목표를 조기에 달성했다. 한편 우석대학교 군사학과는 2015년 학과 개설 이래 17기 33명과 2기 32명, 3기 39명, 4기 39명, 5기 33명 등 5년 연속 전원 100% 장교 임관이라는 전형을 이어가고 있다. 남천현 총장은 "군사학과 학생들의 100% 합격률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불철주야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교수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격려했다. 남궁승필 군사학과장은 "2학년이 각 군 장교선발시험에 모두 합격한 것은 학과 개설 이후 처음"이라며 "앞으로도 초심을 유지해 우리 군사학과 성공 신화를 이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남원 운봉읍서 제38회 황산대첩 전승기념 현화식

심승자(勝地)의 고장 운봉읍에서 지난 15일 제38회 황산대첩 전승기념 현화식을 거행했다. 고려말 무왕 8년(1380) 왜구의 침범으로 국가존립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태조 이성계가 직접 군사를 이끌고 황산에서 왜장 아지발도가 이끄는 왜군 20만명과 치열한 전투 끝에 대승을 거두었다. 황산대첩비지는 국가적으로 귀중한 전승사적지이며, 고려시대 4대 대첩의 역사적 의미를 고이 간직할 곳이다. 운봉읍은 황산대첩의 위적을 기념하고 선조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하여 후손들에게 애국정신을 고취하고자 2년마다 황산대첩을 재연하는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작년 10월 황산대첩 축제를 개최하였고, 올해는 황산대첩 전승기념 현화식만 거행했다. 이날 진행된 현화식은 운봉연합회 회원과 운봉읍민들이 내고장 역사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애국정신을 함양하는 자리가 되었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제 공덕빵줍마빵 나눔, 지역사회 귀감

김제시 공덕면의 두루누리 활력센터 공덕빵줍마(대표 황현정)가 김제시니어종합지원센터(센터장 송용석)의 2023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에 지난 6월 선정되어 월 2회 읍소재지 공덕 북카페에서 빵을 만들고 경로당에 빵을 전달하는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공덕빵줍마는 제과제빵 실습을 시작으로 6월부터 2주마다 직접 빵을 만들어 관내 경로당에 일일이 방문하여 전달하고 있으며, 거동이 불편해 경로당에 나오실 수 없는 노인 가족에 직접 찾아가 빵을 전달하는 등 작은 나눔이지만 지역사회에 큰 기쁨을 선사하고 있다. 앞으로 공덕빵줍마는 지역농산물을 연계한 제과제빵 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역주민 체험 프로그램, 마을공동체 활동

성과공유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과제빵 및 버리스터링을 통한 판매 활동을 통해 수익금이 발생하면 일정 부분 기부해 취약계층 돌봄 지원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황현정 공덕빵줍마 대표는 "더운 여름에 오븐에서 빵을 굽고, 마을을 찾아다니는 것이 힘들기는 하지만 어르신들이 고맙다는 말씀과 함께 맛있게 빵을 드시는 모습을 보면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점점 활력을 잃어가는 농촌지역에 주민들이 공동체 활동과 나눔 활동을 하는 것에 감사함을 느낀다. 앞으로도 농촌지역에 사회서비스와 공동체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제=곽태기 기자

장계농협, 서귀포농협과 고품질 농축산물 교류 행사

전북 장계농협(조합장 박점용)과 제주 서귀포농협(조합장 정기철)은 '도농상생'을 이루고자 고품질 농·축산물 교류 행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행사는 제주도 서귀포농협 하나포터스에서 8월 9일(수)~11일(금) 3일 동안 실시하였고, 장계 및 서귀포 농협 임직원 20여명이 참석하여 약 5천 여만원의 매출액을 올려 성황리에 행사를 개최하였다. 장계농협은 산지농협으로써 서귀포농협은 소비지농협으로써 유대감 형성 및 협력 강화를 통하여 농·축산물 판매 사업을 연계하고 양대 농협의 상생과 발전을 기여하였다. 장계농협(조합장 박점용)은 "장수군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축산물을 홍보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며, "유통



채널 다변화와 시장경쟁력 확보를 통하여 농가소득증대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장수=고관호 기자